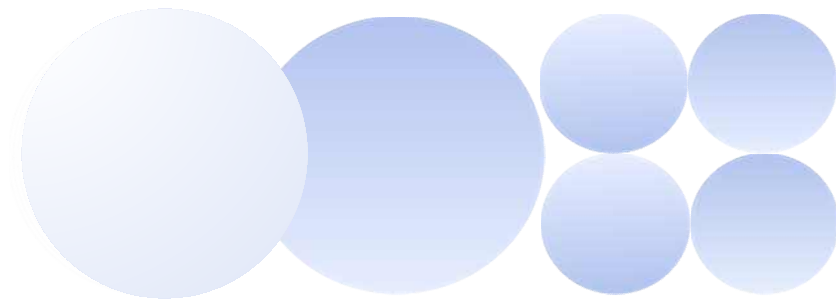


2025년 3월 21일

| 25년 3월 3주차

기술보호 주간동향

Weekly 브리프



공정위, 의결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 개 요

- 공정위가 의결서 공개 범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함

✓ 주요내용

- 올해 제·개정 완료 후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의결서 공개의 효율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기존 '의결 공개 지침'의 개략적 절차와 불명확한 공개 범위로 인해 공정위와 기업 간 공개 범위 협의가 지연되고, 기업은 비공개 요청을 남발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해외 경쟁당국(한국 법원, EU, 미국, 영국, 일본) 사례와 공정위의 업무 경험을 반영하여, 비공개 대상 및 공개 제한 요청·결정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과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예정

의결서 공개 정보 구분 요약

구분	내용
공개 정보	제재 대상 기업명, 위반 혐의, 시정명령·과징금·검찰 고발 등 처분 내용 전부
비공개/ 제한 정보	개인정보 전면 비공개, 사업상 비밀은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삭제하여 공개

✓ 결 론

-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의결서 공개의 신속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5042500002?input=1195m>

중국, 핵심 소재 기술 수출 통제 강화

✓ 개 요

- 중국, 전기차 배터리 및 반도체 생산 핵심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시도

✓ 주요내용

- 중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 그리고 전기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할 방침
 - *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새로운 제한 조치는 지난 2월 공개 의견 수렴 후 곧 시행될 전망
- 중국은 양극재와 갈륨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선도 및 품질 향상에 필수적인 첨단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기존의 무역 제한은 주로 광물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조치는 생산 기술 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통제되는 생산기술 요약

생산기술	상세 내용
갈륨 생산 기술	전기차 급속충전기, 데이터 센터, 군용 레이더 등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기술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생산 기술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
고성능 양극재 기술	전기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필수적인 기술

✓ 결 론

- 중국은 강화된 수출 통제를 통해 핵심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

해외 기술유출 범죄, 과거 대비 급증

✓ 개 요

-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검거 건수와 환수 수익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 주요내용

-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역대 최다인 27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 검거
 - *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1건으로 2~3배 이상 급증함
 - * 해외 유출이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소 10%대였으나, 지난해에는 22%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지난해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65억원으로, 이전(6500만원)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임
- 국수본은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범정부적 대응체계 강화 계획

해외 기술유출 사건 주요 통계

구분	내용
검거 건수	총 27건 (국가핵심기술 관련 11건)
범죄수익 환수	약 65억원
국가별 유출	중국 20건 (75%),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각 1건
기술별 유출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기타 각 1건

✓ 결 론

-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확대할 계획

중국 기술 도용, 25조 피해와 법적 공백

✓ 개 요

- 중국 기업들의 기술 도용으로 우리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처벌과 제재는 미흡한 실정

✓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중 70% 이상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전체 피해액이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창신메모리는 삼성전자 기술 유출을 기반으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고, BOE는 OLED 기술 유출과 관련해 미국 소송이 진행 중
- 지난 10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은 약 200건에 이르지만, 실형 선고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며, 벌금 등 처벌도 해외 대비 미비함
 - *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초범 비율이 높아 재판 전 엄격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와 엄벌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 중소기업 피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결 론

- 중국의 기술 도용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법적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 분리막 시장, 공급망 재편 시동

✓ 개 요

-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수요가 35% 증가하며, 중국 주도에서 한국·일본 기업의 반격으로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음

✓ 주요내용

- 분리막은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면서도 리튬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도와,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
 - * 중국에서는 창신신소재(SEMCORP)가 1위를 차지하며 중국중재그룹(SINOMA)과 성원재질(Senior)이 그 뒤를 이음
 - * 중국 제외 시장에서는 일본 아사히카세이, 한국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일본 도레이, 한국 WCP 등이 주요 공급업체로 자리 잡음
-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유럽 배터리 공급망 규제 변화에 대응해 유럽·북미 등지에서 생산 기지를 확장하며 비중국 분리막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지역별 전기차 분리막 시장 현황

구분	적재량	전년 대비 성장률	주요 공급업체 (국가별)
글로벌	132억3000m ²	+35%	-
중국 제외	38억2900m ²	+16%	일본: 아사히카세이, 한국: SK아이이테크놀로지, 도레이, WCP

✓ 결 론

- 중국 주도의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 기업들이 해외 생산 기지 확대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

‘희소금속 제조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난항

✓ 개 요

- 경영권 분쟁과 반대 의견이 겹치며 안티모니·헤마타이트 공법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지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고려아연이 보유한 안티모니 습식 제련 기술과 헤마타이트 공법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며 2022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 * 안티모니 기술은 친환경·고효율로 제조 원가를 기존의 40%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헤마타이트 공법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철을 효율적으로 회수
- 영풍 측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경영권 분쟁 방어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
 - * 전문위원회는 기술적 독보성과 가치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예정이나, 분쟁 요소로 인해 심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안티모니는 방산, 태양광,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활용되며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
 - * 중국의 전략적 수출통제로 가격이 급등(1년 만에 약 5배 상승), 자원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자체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결 론

- 경영권 분쟁을 넘어 국가 자원안보 관점에서 희소금속 원천 기술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